

■ 주요 뉴스: 1월 FOMC 의사록, 목표 상향하는 인플레이션 지속 시 금리인상 필요 의견 제기

- 미국 1월 산업생산, 1년 만에 최대. 부통령은 對이란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 언급
- ECB 드 갈로 위원, 필요 시 환율 대응. 라가르드 총재는 조기 퇴진 방안 검토
- 일본, 다카이치 2차 내각 출범. 재정지출 확대 및 매파적 안보 기조 지속 예상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1월 FOMC 의사록, AI發 부정적 여파 우려 완화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0.6%], 달러화 강세[+0.6%], 금리 상승[+2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기술주 강세로 올랐으나 1월 FOMC 의사록에 상승폭 축소
유로 Stoxx600지수는 영국 1월 소비자물가 오름세 둔화 등으로 1.2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추가 금리인하 시기 불확실하다는 평가 등으로 상승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6%, 1.0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부진한 20년물 입찰 수요 등으로 상승
독일은 특별한 이슈 부재한 가운데 강보합 마감

※ 뉴욕 1M NDF 증가 1450.7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52.2원, 0.50% 상승). 한국 CDS 강보합

		2/18일	2/17일	전일대비			2/18일	2/1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881.3	6,843.2	+0.56%	국채 금리 10y	미국	4.08%	4.06%	+2bp
	유럽	628.69	621.29	+1.19%		독일	2.74%	2.74%	+0bp
	중국	휴장	휴장	-		영국	4.37%	4.38%	-0bp
	일본	57,144	56,566	+1.02%		CDS 5y	한국	22bp	22bp
	한국	휴장	휴장	-	중국		44bp	44bp	-0bp
	달러지수	97.74	97.16	+0.60%	위험 지표	EMBI+	-	260	-
유로화	1.1783	1.1855	-0.61%	VIX		19.62	20.29	-3.30%	
환율	엔화	154.81	153.31	-0.97%		WTI유	65.19	62.33	+4.59%
	위안화	휴장	휴장	-	원자재	구리	577.8	564.3	+2.40%
	원화	휴장	휴장	-		금	4,977.6	4,877.9	+2.04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
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1월 FOMC 의사록, 목표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지속 시 금리인상 필요 의견 제기

-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, 다수의 위원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완화되었으나 인플레이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. 특히 이 가운데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언급
- 또한 일부 위원들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통화완화를 시행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목표(연율 2%) 달성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. 이는 일부 위원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금리인하에 대해 덜 개방적이라는 의미로 해석(Bloomberg)
- 한편, 연준의 보우먼 이사는 최근 발표된 고용보고서가 여타 경제 지표들과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면 다소 이상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평가. CME의 FedWatch는 계속해서 연내 2회의 금리인하(6월 및 9월, 각 0.25%p)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.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1월 산업생산, 1년 만에 최대. 부통령은 對이란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 언급

- 1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0.7% 늘어 예상치(0.4%) 상회하면서 작년 2월 이후 최대.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이 늘어 일부에서는 이를 제조업 회복의 신호로 평가. 또한 기업 시설투자를 의미하는 항공기 제외 비국방 자본재 수주 역시 전월비 0.6% 늘어 예상치(0.5%) 상회. 이는 AI 관련 투자 호조 등의 영향
- 작년 12월 주택착공은 140.4만건(연환산)으로 전월(132.2만건) 대비 증가했고, 건설허가 역시 144.8만건으로 전월(138.8만건) 대비 높은 수준
- 한편,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 협상에서 미국의 핵심 요구인 '레드라인'을 언급하지 않았으며,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 사용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. 이는 전날 양국 간 회담이 건설적이었고 기본원칙에 대한 전반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위트코프 특사의 발언과 다소 상이한 평가로 해석
- 백악관의 래빗 대변인은 먼저 외교적 방법을 통해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만, 이란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많이 존재한다고 경고

■ 우크라이나, 러시아와의 2차 평화 회의는 큰 진전 없이 종료. 회의는 계속 진행

- 관계자들에 따르면 2차 평화 회의는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로 종결.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회의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러시아를 비난하고, 러시아에 대한 영토 할양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

■ ECB 드 갈로 위원, 필요 시 환율 대응. 라가르드 총재는 조기 퇴진 방안 검토

-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드 갈로 위원은 환율을 주시하고 있으며, 물가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적절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. 유로화 가치가 최근 올랐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 평균 수준이라고 진단
- 한편, 이날 일부 언론은 ECB 라가르드 총재가 내년 10월 임기 만료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사임할 수 있다고 보도. 이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차기 ECB 총재 인선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필요하기 때문

■ 영국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, 10개월 만에 최저. 금리인하 기대 증가

-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3.0% 올라 전월(3.4%)에 비해 상승세 둔화. 전월비 기준으로는 0.5% 하락. 이는 유가 하락 등이 반영. 시장에서는 영란은행이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

■ 일본, 다카이치 2차 내각 출범. 재정지출 확대 및 매파적 안보 기조 지속 예상

-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의 다카이치 대표가 총리로 다시 선출되었고, 2차 내각은 기존의 각료를 모두 유임하면서 출범. 20일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및 안보 정책에 대한 연설 나설 예정. 연설문 초안에 따르면 '책임 있는 적극 재정'을 강조하고, 소비세 철폐를 서두르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
- 다카이치 총리는 GDP 대비 부채 비율 조절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. 다만,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
- 안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매파적 노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. 특히 주요 물자 공급망 등 경제 기반 강화, 안전보장 협력 확대 기조를 유지할 방침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2/19일 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보우먼 이사 및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 발언
- 미국 2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및 1월 잠정주택판매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달러화지수, 건재한 지배력·악재 선반영 등으로 반등 가능성 큰 편 - Financial Times

(Have we hit peak dollar bearishness?)

-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정책 등으로 달러화 약세 전망이 증가.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달러화는 추가 하락 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. 첫째, 수출 송장(54%)·국제 대출 및 예금(60%), 글로벌 채권 발행(70%), 외환보유금(57%) 등에서 달러화 지위는 견조. 아울러 실질적 대안 통화가 부재하여 달러화 지배력은 여전히 견재
- 둘째, 미국 정부 부채 우려 고조, 연준 독립성 및 나토 동맹국 침공 위협 등 수많은 악재를 반영하며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화 가치는 이미 7% 하락한 상황. 이에 달러화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

■ 미국 투자자, 경제 및 증시의 전례 없는 국면 전개 가능성 대비 요구 - Financial Times

(US markets and the economy are heading into uncharted territory)

- '26년 양호한 미국 경제 성장 및 달러화 약세 예상 속에서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,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.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있음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또 다른 弱달러 추세 진입을 시사
- 이에,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높은 국내 투자 비중을 고려한 환위험 회피와 경쟁력 있는 수익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,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확대할 필요. 또한 인플레이션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경우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사안

■ 미국 사모대출, AI發 소프트웨어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경계할 필요 - 블룸버그

(Private Credit Should Worry About a Singularity in Software Debt)

- AI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 부실화 위험성이 신용시장에서도 제기. 그러나 관련 기업이 소매업·식품제조업 등 여타 업종으로 잘못 분류되어있어 실제 위험 노출 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존재. 특히, 사모대출 등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20% 내외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채무불이행 발생 시 관련 충격은 상당할 소지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일부 자산운용사는 소프트웨어 기업 가치가 여전히 높다고 평가. 그러나 기업가치 기반 대출은 최근의 과도한 평가 등을 고려할 경우 그 자체로 위험성 내포. 이는 채용자 시 신규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. 또한 관련 위기는 증시·채권 등 금융시장 전반으로도 확산될 가능성

- **소프트웨어 관련주 매도 증가, AI 관련 장기 밸류에이션 하락 우려 반영 - Financial Times**
(The software sell-off, part II)
 - 최근 소프트웨어 관련주에 대한 매도 압력이 증가. 이는 AI가 기존 유료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.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규제·복잡성·책임성 등의 이유로 대체가 어려운 기업을 선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고(Goldman Sachs), 다른 한편에서는 높은 통합·전환 비용 등이 방어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
 - 그러나 핵심은 시장에서는 단기 실적보다 10년 후 장기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. 실제로 AI가 지금 당장 기존 제품을 대체한다기 보다는 필요성 자체를 훼손될 수 있기 때문. 나아가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성 향상에 따른 광범위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경우 시장 전반의 위험이 증가하고 밸류에이션 하락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존재
- **미국 재정 악화, 정부의회의 미온적 대응으로 해결 불가능 국면 도래할 우려 - 블룸버그**
(America Has a Terminal Case of Fiscal Paralysis)
- **미국 주택시장, 임금 상승 둔화저축 감소연체 증가 등으로 구매력 위기 심화 - 블룸버그**
(The Affordability Crisis Can Now Add Wages to the Mix)
- **미국 인플레이션, 심각한 수준 아니지만 개선 기미도 없는 상태 - Financial Times**
(Inflation is not that bad but it is not getting better)
- **글로벌 경제, 인구 부족 우려는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 시 기우에 불과 - Financial Times**
(The truth about population decline)
- **온라인 쇼핑, AI의 다음 희생자가 될 가능성 - 블룸버그**
(Online shopping could be AI's next victi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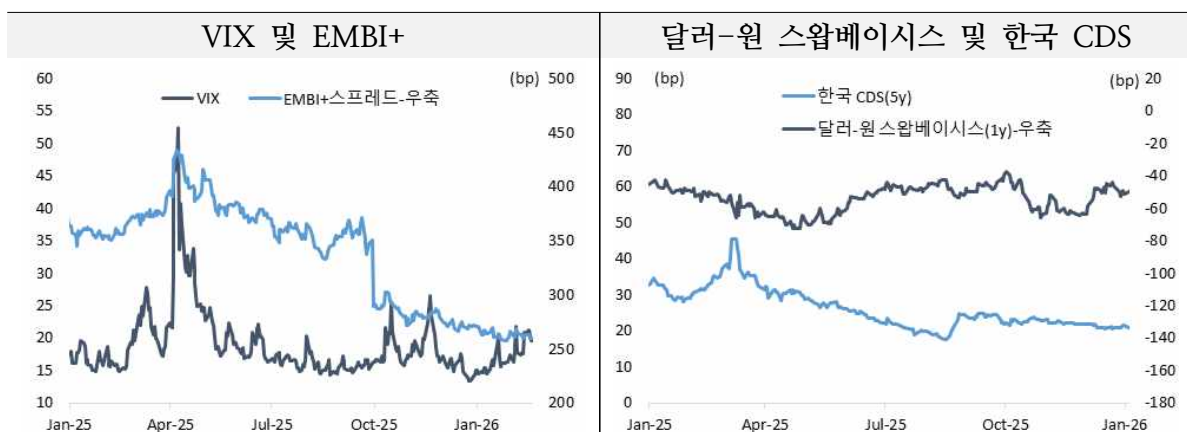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